

#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경로분석

## The Path Analysis of Emotional Support, Emotion Regulation and Self-Efficiency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이 하 늘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교 수 · 연구원 이 숙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Ha Neul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Research Fellow* : Sook Lee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children perceive emotional support,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efficiency. They came mainly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which are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Questionnaires were provided to these students and the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Participants were 503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ly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iency directly affected in the school adjustment. Moreover, emotional suppor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Second, although emotional support directly affected in the school adjustment, it also indirectly affected in the school adjustment through emotional regulation. Third, emotional regulation did not directly affect in the school adjustment, but on the other hand, it indirectly affected in the school adjustment through self-efficiency.

**주제어(Key Words)** :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정서조절능력(emotional regulation), 자기효능감(self-efficiency)

## I. 서론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학교는 아동들에게 단체생활의 규칙을 익히게 하고 성취감과 협동심, 자립심을 기르고 바람직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자기 자신을 이해, 수용,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청소년기나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적응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되는 밑거름이 된다(Park, 2001). 즉 아동의 원만한 학교생활은 사회적인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후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과도 관련이 깊어 아동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동들 중에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적절히 수용하여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불만, 절망, 무능력, 자포자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비행행위를 일삼게 되며, 공격적, 파괴적 행동을 보이거나 자아개념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는 물론 자신에게도 유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Jeong, Kim, & Yoon, 1998). 이를 뒷받침 하듯, 최근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학교부적응 등으로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초, 중, 고생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ong, 2011, September 8), 이들 초, 중, 고생의 학업포기는 곧 청소년 사회범죄로 빠질 우려가 있어 학교교육의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 학교부적응 비율은 고교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위험성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kyoengin, 2011, September 16). 문제의 예방적 차원이 강조되는 요즘 시대에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Jang & Cho, 2007; Park, 2010), 자기효능감(Cho, 2008; Kim, 2009), 자아탄력성(Kang, 2008), 가족변인 및 부부갈등(Kim, 2005; Lee, 2006), 정서지능(Choi, 2008; Kang, 2009; Lee & Choi, 2009), 사회적지지(Choi, 2009; Lee, 2011) 등이 보고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

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어머니와 친구의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Jeong(2006)은 아동이 점차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Park과 Choi(2007)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학교에서의 학업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사회 적응상의 문제 등이 정서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형성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즉 정서적 측면의 발달이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아동의 정서적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5년~2009년 5년 동안 19세 이하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장애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Bum, 2010, May 13), 이는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도(Cobb, 1979)이며,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인이 제공해주는 정신적인 도움으로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효율적인 대처, 적응, 심리적·신체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Pierce, Sarason, & Sarason, 1992). 실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의 지각은 부적응이나 정신질환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으며(Han, 1996), Kim(2005)은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교사, 친구, 수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 중에서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서적 지지의 대상으로서 어머니와 또래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Hay & Ashman, 2003; Sarason, 1990),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이다. 즉 아동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 이해 및 격려 등 정서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변인이라면,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내적인 변인으로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발달에 중요하다.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이나 상대방의 정서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수준을 적응적으로 처리하는 능력(Kopp, 1988)으로 적절한 사회적응 및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Calkins(1994)는 정서조절이 정서적 각성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책략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정서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대인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quoted in Lim & Lee, 2010). 또한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의 경우 아동이 속한 집단에서 적응적이고 자신과 다른 아동의 욕구의 조화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또래유능성이 높고 교사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어서 고립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정서적,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다(Park, 2004). 이처럼 정서적 요인과 적응은 실제로 중요한 관련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서적 능력이 떨어지고 부족할수록 사회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h, 2005).

자기효능감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Cha, 2009; Lee & Choi, 2009).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인간행동의 근원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과 평가이자, 목표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로써(Lee, 2010), 개인행동을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러 측면에 작용하고 개인의 적응 및 부적응 행동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성취와 친구관계, 학교적응,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하며(Robbins et al., 2004),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인 경우 학교적응 점수가 높다는 선행연구(Jeong, 1998; Lew, 2001)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의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정서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그리고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경로로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경로모형의 검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아동의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 광산구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총 5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되지 못한 자료 27부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기입항목이 누락된 자료 20부를 제외하여 총 503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심리적·신체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달을 경험하며, 점차적으로 사회적 대인 관계를 확대해 나가며 초기 청소년기와 연결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241명(47.8%), 여학생은 262명(52.0%)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5학년에 212명(42.1%), 6학년이 291명(57.7%)으로 6학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503)

| Variables | Section | N   | %    |
|-----------|---------|-----|------|
| Gender    | male    | 241 | 47.8 |
|           | female  | 262 | 52.0 |
| Grade     | 5 th    | 212 | 42.1 |
|           | 6 th    | 291 | 57.7 |

### 2. 측정도구

#### 1) 정서적 지지

아동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Kim(1998)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정서적 지지 척도는 하위영역인 ‘어머니 정서적 지지’, ‘친구 정서적 지지’를 각 7문항씩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지지로 예를 들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준다’ 등의 문항으로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를 부여하여 4점 Likert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친구의 정서적 지

지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2)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Shields와 Cicchetti(1995)에 의해 개발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Park(2004)이 번안한 것을 Lee(2008)가 아동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은 감정적 부적절성, 강도, 긍정/부정적 정서, 적응성, 상황적합성 등의 정서조절과정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한 정서조절능력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를 부여하여 4점 Likert 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부정적인 항목은 역산 처리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65로 나타났다.

## 3) 자기효능감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지는 Cha(1997)가 만든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Kim(1997)에 의해 타당화를 거쳐 완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9문항), 과제난이도 선호(6문항)의 세 하위요인으로 총 22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4)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질문지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Yu(1994)가 제작한 검사도구를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총 4개의 하위변인으로 각 변인별 8문항인 것을 문항 간에 중복되거나 현재 학교생활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생각된 문항을 제외하여 교사관계(7문항), 교우관계(7문항), 수업태도(7문항), 학교규칙(7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을 역 채점하였다. 모든 문항을 합한 것이 학

교적응 점수이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10년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의 3개 초등학교 5,6학년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본 조사는 질문지조사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내 초등학교 3개교를 임의표집하고 5, 6학년 3개 학급씩을 다시 추출하여 남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교사에게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교사의 지도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총 5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되지 못한 27부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기입항목이 누락된 자료 20부를 제외하여 총 503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Program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변인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정서적지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MO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아동이 지각한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각 변인들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 $r = .57, p < .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아동이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정서조절능력은 학교생활적응( $r = .40, p < .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또한 학교생활적응( $r = .45, p < .001$ )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서조절과 자기효능감( $r = .60, p < .001$ )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지지( $r = .44, p < .001$ )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지지( $r = .33, p < .001$ ) 또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four variables (N = 503)

| Variables              | ①      | ②      | ③      | ④ |
|------------------------|--------|--------|--------|---|
| ① emotional support    | 1      |        |        |   |
| ② emotional regulation | .44*** | 1      |        |   |
| ③ self-efficacy        | .33*** | .60*** | 1      |   |
| ④ school adjustment    | .57*** | .40*** | .45*** | 1 |

\*\*\*P < .001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은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경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는 정서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1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각각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ure 2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서조절능력이 각각 매개하고, 정서조절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Figure 3에서는 매개모형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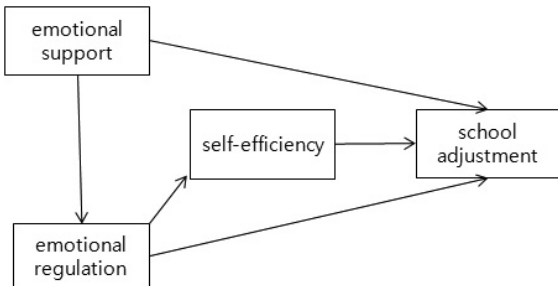


Figure 1. Study Mod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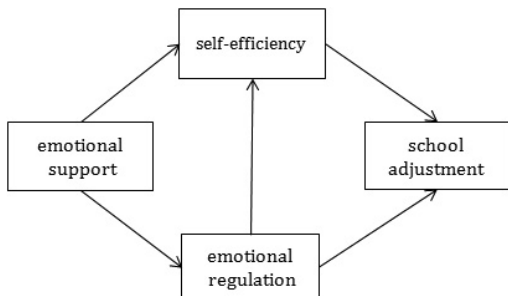


Figure 2. Study Mode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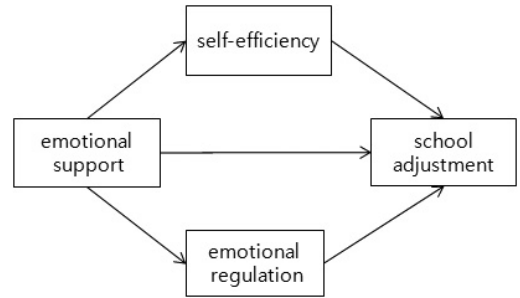


Figure 3. Study Model 3.

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 모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Figure 1, Figure 2, Figure 3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과 같다. 이를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에서 계수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비교검증을 위해 절대적합지수 카이 자승 ( $\chi^2$ )과 증분 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간명적합지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RMSEA*등을 산출하였다.

모형의 *NFI*, *CFI*의 지수들이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Yang, 1998), *RMSEA*는 값이 .05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로 볼 수 있다(Rex & Kline, 2004).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Figure 1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NFI* = .99, *CFI* = .99로 모두 .90이상이고, *RMSEA* = .01로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ure 2와 Figure 3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NFI*와 *CFI* 및 *RMSEA* 지수들이 적합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또한 간명적합지수인 *AIC*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값이 작게 나타난 Figure 1이 본 연구의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함을 알 수 있다.

3. 직접·간접효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직접·간접·총 효과 및 매개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Figure 4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연구모형의 직접·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정서적 지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또래의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다

Table 3.  
Goodness of Fit Test

|               | $\chi^2$ | P   | df | NFI | CFI | AIC    | RMSEA |
|---------------|----------|-----|----|-----|-----|--------|-------|
| Study Model 1 | 1.09     | .30 | 1  | .99 | .99 | 27.09  | .01   |
| Study Model 2 | 111.95   | .00 | 1  | .79 | .79 | 137.95 | .51   |
| Study Model 3 | 162.28   | .00 | 1  | .69 | .69 | 188.28 | .61   |

고 느끼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Chu & Park, 2005)와 일치하며,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교우관계적응을 잘한다는 Kang(200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정서조절능력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효과만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능력이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정서적 지지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지지는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과는 정서조절능력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지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은 간접효과보다는 직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경로와 설명력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아동이 어머니와 친구의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사랑과 이해, 격려,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이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선행연구(Cho, 2008; Kim, 1995; Yim, 2001)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상관 및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명확한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학교생활적응 향상 및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등의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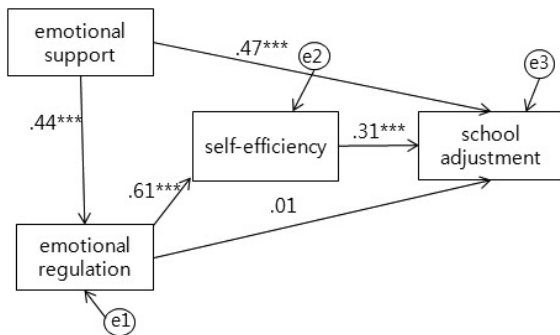


Figure 4. The final model's path coefficients.

Table 4.  
The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
|--|---------------|-----------------|--------------|
| emotional support → emotional regulation | .44**         | -               | .44**        |
| emotional support → self-efficiency      | -             | .27**           | .27**        |
| emotional regulation → self-efficiency   | .61**         | -               | .61**        |
| emotion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 .47**         | .10***          | .57**        |
| emotional regulation → school adjustment | .01           | .19**           | .20**        |
| self-efficiency → school adjustment      | .31**         | -               | .31**        |

\*\* $p < .01$ , \*\*\* $p < .001$

어 정서조절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서조절 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증진 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다면 학교부적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서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조절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이때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효과의 크기가 작아 정서조절능력이 정서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을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으며(Kim, 2010),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날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연구결과(Jang, 2010)를 지지하는 결과로 아동은 가까운 누군가가 자신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거나 지지해준다고 지각할수록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사회 상황적 요구에 충족시키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어머니나 친구의 정서적 지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나 정서조절능력과 같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강도와 수준으로 조절하는 등의 개인적인 조절능력이 함께 한다면 학교적응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감소시키는 개인의 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자기 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효능감은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각 연구 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 점에 근거할 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기효능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반영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고려함에 있어 그 개별적· 상대적 영향력의 의미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정서조절능력이 다른 변인들 중에서도 대인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Dodge, 1989; Ro, 2003)에 비추어, 학교생활적응에는 교사나 친구관계의 대인관계 측면의 적응 외에도 수업과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도 포함되므로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정서적 지지로 아동의 개인변인의 영향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의 관심과 적극적인 경청, 격려 등의 환경으로부터의 지지가 아동의 학교생

활적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정서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에 아동의 개인변인인 정서조절 능력과 자기효능감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궁극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및 개인변인을 비롯하여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나 또래와 함께 친밀감을 향상할 수 있는 등의 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등을 살펴보고 풍부한 기초자료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정서적 지지의 특성상 자신이 지각하는 것과 실제 어머니와 친구가 제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가 아동이 지각하는 것에 따른 각 변인간의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하는 정서적 지지와 실제 대상이 인식하는 정서적 지지에 따른 비교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대상 및 방향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적응을 하위영역별로 분석한다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후속연구에는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로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어서의 하위영역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Eisenberg & Fabes, 1992; Mayer & Salovey, 1990; Park, 2001)과는 다르게 초등학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을 제외한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Lee(2011)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는 Baek(2007)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정서조절능력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및 매개효과 재검증을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와 친구의 정서적 지지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정서조절 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더불어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중재적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References

- Baek, S-Y. (2007). The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children's adaptation of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um, H-J. (2010, May 13).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children five years increased by 60% /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emergency' ... "Attention to children" .naeil.com. <http://www.naeil.com/News/economy> 에서 인출함.
- Calkins, S. D. (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s(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9, nos 2-3, serial no 24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 J-E. (1997). A Study for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a, Y-M. (2009). Self-efficacy and Social Skills-School Adjustment Relations of Upper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Cho, Y-M. (2008). Impact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Adolescence's and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i, Y-J. (2008). The Cor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Korea.
- Choi, Y-J. (2009). The children's shynes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their effect on the schoo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u, M-A., & Park, A-C. (2005).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The Korean Society Child Education*, 15(2), 271-288.
- Cobb, S. (1979). Social support and Health Through the life course. In Matilda, M. Riley(de), *Aging from birth to deat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Boulder: Westview press.
- Dodge, G. (1989). Coordinating responses to aversive stimuli.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39-342.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Newbury Park, CA: Sage.
- Han, M-H. (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Han, S-A., & Moon, S-B. (2011). A Structural Analysis on School-Ag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8(3), 355-379.
- Hay, & Ashman. (2003).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and General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parents, peers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0(1), 77-91.
- Jang, S-H. (2010). The Effect of Adolescent's emotional regulation and parenting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Y-S., & Cho, A-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Maladjustment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and Self-Esteem. *The future of youth*, 4(1), 123-136.
- Jeong, K-Y. (2006). Exploring Teenagers' Addiction to Cellular Phone and Analyzing its Relation with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M-S., Kim, S-K., & Yoon, D-J. (1998). Rationality of Action for the Promotion of Research on Program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future of youth*, 1, 93-119.



- Jeong, S-A. (1998).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 Kang, C-S.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Kongju, Korea.
- Kang, E-H. (2009).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Regulation 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Kang, K-D. (2007). Relations of School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in addition to chil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A-Y. (1997).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Korea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1(2), 1-19.
- Kim, B-C. (1995). Self-efficacy and Adaptive research o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Kim, J-A. (2009).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to Parents,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Kim, J-E. (2005).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Students' Adjustment of School Life in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Kim, M-J. (2005). The Effect of 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Ego-resiliency on the Children's Internalizing-Externaliz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Kim, S-H. (2010). The effects of parents, teacher's social supports and emotion regulation perceived by examinee on test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M. (1998).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o adapt to school life and the impact of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opp, C, B. (1988). Adolescent outcomes for hyperactive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3, 786-799.
- Kyoengin. (2011, September 16). Serious level of elementary,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djust to school, *kyoengin.com*.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763>에서 인출함.
- Lee, E-K. (2008). The Effects of a Cognitive-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Emotion Regulation Skill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ju, Korea.
- Lee, I-H., & Choi, S-Y. (2009).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Social Skills as Predictor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Society Child Education*, 18(4), 47-56.
- Lee, J-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Lee, K-N. (2006).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Aggression and the Variables as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5(1), 31-44.
- Lee, S-J. (2010).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Maladjusted Children's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Lee, S-M. (2011).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Korea.
- Lew, H-H.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Lim, Y-J., & Lee, E-K.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hild Sex.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9(2), 285-294.
- Mayer, J.,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21.
- Park, A-C., & Choi, S-Y. (2007). Differences in Adaptation to School according to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Learning Motivation.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1(4), 989-1005.
- Park, E-M.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eachers, Peers, Mother, Self-esteem, Depression on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13(3), 75-88.
- Park, J-W. (1985).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Measur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M-J.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inju, Korea.
- Park, S-J. (2004). Relations between Maternal Socialization Behaviors of Emotions and School-aged Children's Competence and Strategies of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K. (2011).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Parents Educated to Adapt to the School Impact Interaction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ierce, G. R., Sarason, B. R., & Sarason, I. G. (1992). General and specific supportivenes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97-307.
- Rex, B., & Kline. (2004).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GuilfordPubn.
- Ro, S-Y. (200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to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Robbins, S. B., Lauver, K., Le, H., Cavis, D., Langley, R., & Carlstrom, A. (2004). Do Psychosocial and study skill factors predict college outcom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0(2), 261-288.
- Sarason, B. R., Sarason, I. G., & Pierce, G. R.(Eds.). (1990). Social Support : An interactional view. New york : Wiley.
- Shields, A., & Cicchetti, D. (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 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al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Song, Y-I. (2011, Semtember 8). Gwangju Jeonnam three years suspended, a student studying 13,000 people. Yonhapnews. <http://app.yonhapnews.co.kr> 에서 인출함.
- Suh, E-H. (2005).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multivariate data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B-H. (1998).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oul; hakjisa.
- Yim, Y-J. (2001). The Relation 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 - Efficacy and School-Life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Jeonju, Korea.
- Yu, Y-H. (1994). School adjustment, anxiety,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alysis center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접 수 일 : 2011년 10월 29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월 9일